

ECONOMY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지역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6명은 20~30대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3조8417억원 40.7% 증가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은 한전KPS가 2000억원 이상 줄면서 1.6% 감소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제공한 '2월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주식거래대금은 3조8417억원으로 전월보다 40.7% (1조1111억원) 증가했다.

전체 투자자의 거래대금과 비교한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0.8%를 차지했다. 반면 시가총액은 20조690억원으로 전월보다 1.6% (-3215억원) 줄었다. 특히 한전KPS의 시가총액이 전월과 비교해 2048억원 줄었다.

시가총액 증가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는 △한국전력 (13조7059억원, 1926억원 ↑) △광주신세계 (2379억원, 64억원 ↑) △금호건설 (976억원, 63억원 ↑) 등이었고 코스닥은 △대신정보통신 (459억원, 63억원 ↑) △그린생명과학 (362억원, 29억원 ↑) △우리손에프앤지 (905억원, 26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원진수 광주혁신성장센터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미국 관세 부과 강령 예고와 대형기술주 실적 전망 불안감 등으로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 마감됐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총 1315명 중 59.0% 차지...전국 2만7372명 박용갑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 대책 필요"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1300여명을 넘어섰다. 전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광주·

광주경총, 직장적응 지원사업 '탄력'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직장적응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경총은 고용노동부 직장적응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8억1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광주경총은 이 사업을 통해 2690명의 관리자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및 직장적응 은보당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당초 목표했던 700명을 훨씬 상회한 성

과를 달성, 전국 최우수 사업평가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지역 기업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 혁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초기 청년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직장예절, 팀협업 및 기본 오피스 교육 등을 지원한다.

평소 기업에서 겪고 있는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양질의 직

장 적용 프로그램으로 조직 적응 도모 및 애사심 향상, 기업 생산성 증대 등 지역 기업의 일자리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지난해까지 사업세부계획 및 일정 등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다음달 11일까지 광주 산업단지 및 일반 기업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자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92명), 40대(3873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2년 연속 선정 사업비 8억1200만원 확보 중장년층 생애경력설계사업도 본격 추진

경총 홈페이지 (www.gjef.or.kr) 또는 일자리사업부 (062-654-3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성장 직장적응 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등 다양한 수임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준비로 지역 대표 경제 단체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유치와 적극적인 행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경총은 지난해 말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의 제도약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400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1500명 수료를 목표로 오는 12월 까지 총 40회 이상 운영된다. 교육 운영시간은 1일 4시간(구직자)과 6시간(재직자)으로 진행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 교육 수료시 구직의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센터에서는 중장년의 구직 기술향상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인 '제도약 프로그램'과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중장년 자기개발을 위한 인문학 특강, 청춘 문화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된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92명), 40대(3873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92명), 40대(3873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2년 연속 선정 사업비 8억1200만원 확보 중장년층 생애경력설계사업도 본격 추진

경총 홈페이지 (www.gjef.or.kr) 또는 일자리사업부 (062-654-3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성장 직장적응 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등 다양한 수임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준비로 지역 대표 경제 단체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유치와 적극적인 행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경총은 지난해 말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의 제도약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400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1500명 수료를 목표로 오는 12월 까지 총 40회 이상 운영된다. 교육 운영시간은 1일 4시간(구직자)과 6시간(재직자)으로 진행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 교육 수료시 구직의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센터에서는 중장년의 구직 기술향상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인 '제도약 프로그램'과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중장년 자기개발을 위한 인문학 특강, 청춘 문화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된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하이브리드 식생 포장 Hybrid Vegetation Pavement

◆ 천연펄프를 주재료로 사용 친환경제품 ◆

- 매우 가벼운 소재로 시공이 간편
- 소규모 현장 설치가 용이 (중장비 불필요)
- 프리카스트잔디블럭과 달리 하자 미발생
- 기존 잔디블럭과 비교하여 경제성
- 주차장, 인도, 산책로, 변변 등에 적용 가능

강재 틀러 가이드레일 SB4.5등급 (강도리)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 대형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세계 최초 개발한 강재 틀러 가이드레일"

인터베인지 곡선도로 터널 입구

본 사 1(광명) 전남 원평군 학교면 학교정당길 35
 사 무 소 2(광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동신당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15호 Tel.031)476-8504

광주신세계 본관 2층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는 화이트 데이 선물로 매그놀리아 오드 퍼퓸을 추천한다.

광주신세계 '화이트데이' 판촉 농협 광주본부-광주여대, 농촌봉사활동 업무협약

주얼리·향수·먹거리 행사 등 재능기부·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등 협력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여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광주여대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우리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학생들의 참여로 농촌활력화 및 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참여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현호 본부장, 이선재 총장을 비롯한 농협과 광주여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농촌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대학발전기금 지원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 △농촌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의 사업 협력을 통해 농촌지원 및 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고 MAUM(마음) 교육 선도대학으로서 그 가치를 지역사회에 나누고 공헌해 상호발전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광주여자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농촌인식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봉사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화이트데이' (3월 14일)를 앞두고 ㈜광주신세계가 다채로운 상품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는 실버 커플 팔찌를 최대 33%까지 할인한다.

프랑스에서 온 니치향수 대표 브랜드 '딤티크' 제품도 눈길을 끈다.

딤티크 리미티드 오드퍼퓸 오르페옹 (30ml)은 삼나무의 깊은 향에 주니퍼 베리를 조합한 것으로 어디든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한 한정판 제품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출발해 8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매그놀리아의 화려함에 마스크 향으로 무게감을 더한 매그놀리아 오드 퍼퓸 (50ml)을 내놓았다.

달콤한 선물은 본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바삭한 쿠키와 고소한 견과류를 섞어 만든 수제 마시멜로우 쿠키를 판매하는 '멜로우츄' 팝업이 오는 14일까지 운영된다.

페레로로쉐와 순우유초코칩 마카롱을 판매하는 아피당은 선물용으로 좋은 10구 패키지와 5구 패키지를 할인해 판매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